

제1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2. 10. 1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0월 12일 14:00 ~ 14:23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김 소 영 부위원장

권 대 영 위 원

이 복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1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8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2년도 제1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8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87호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88호 『흥국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한 교보생명보험(주) 등 2개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 6,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기초서류의 관리기준 위반보다는 오히려 기초서류의 작성·변경 원칙 위반에 해당되므로 법령 정비를 통해 제재

근거를 보다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안건검토 소위원회의 핵심 결론임. 기존 제재 사례와의 일관성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의결하되, 향후 관련 근거 조문 등의 정비가 꼭 됐으면 좋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89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1)면책사항 누락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2)보험 인수, 보험료할인·환급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3)보험요율 산출시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과징금 2억 6,400만 원과 과태료 2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0호 『(주)케이티 등 2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케이티 및 (주)엘지유플러스 2개사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본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48호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추진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개선’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수립한 업무혁신 로드맵을 보고하는 내용

○ (위원) 금감원 혁신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높은 평가를 했음. 다만, 그것들이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이는 이번 정부의 국정 목표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구현하겠다는 의미임.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디지털화하거나 체계적으로 집적시키고 표준화하고 분류하여 공개하면 금융행정 자체가 굉장히 선진화될 것 같음. 안전검토소위원회를 할 때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금감원이

며칠을 걸려서 자료를 찾아오는 것임. 그 자료들이 파일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것임. 또한, 최근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많이 하고 있어서 소송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안전이나 관련 자료 등 증거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제재를 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업무를 할 때도 금감원 직원이나 금융위 직원들이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참고하면 훨씬 행정이 효율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그래서 금감원과 저희 업무를 크게 나눠보면 법령과 규정의 재·개정 및 유권해석, 인허가와 각종 보고, 검사·감리·조사·제재 이렇게 나눌 수 있음. 인허가는 원스톱시스템을 금감원과 저희가 연결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검사·감리·조사 분야의 제재 결과를 정리하는 것, 그런 작업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TF 만들어서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디지털화 하는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연내에 금융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실무부서에 드려놓았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한번 논의를 하면 금융행정에서 디지털화를 시작하는 첫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음.

- (위원) 사실 작년 금감원 예산 심의 시 역대 가장 많은 IT예산을 의결한 바 있음. 일정 부분 성과도 있지만, 공시나 연결관리 등 일부 부족한 점도 있어 그 부분은 우리가 금번 예·결산 심의를 할 때 별도의 논의를 거쳐 조금 더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음.

- (위원) 제가 6월에 취임한 이후에 조금 더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음.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다만,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5개 분야 20대 과제를 하면서 과제내용이 예를 들어 포털구축이라든가 디지털화를 위한 기본적인 일정(agenda)은 있어서 개별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단계별 로드맵이 있을 테니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고, 예산이라든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어떤 형태로 TF를 구성해서 할지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준비를 하겠음. 사실 이번만큼은 인수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개선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금감원 내부도 저 개인도 깊은 의지를 갖고 있음. 위원장님께도 제가 그전에 한두 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지침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고 그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금융위원회도 금융혁신·개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법개정도 포함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많아서 조금 이슈가 많음. 금감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대 분야 20대 과제 중심으로 해나가시면 제 생각에는 금융업권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음. 국정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금융위도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적극

적으로 해서 개혁 추진 과제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18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23분 폐회)